



주 제;	“내어줌의 삶.”	“성체 성혈 대 축일” (다해)	2007 년 6 월 10 일
복음 묵상:	루가 9,11 ~-17	창세 14,18-20	1 고린 11,23-26

매일 미사 때 받아 먹는 성체를 한낱 밀가루 빵 조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을 받아먹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삶에서 이미 성체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며, 성체를 한낱 밀가루 빵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생명의 빵을 받아 먹음은 이미 그리스도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올리버 판사는 그리스도화 되어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걸어갈 때,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느님 나라에 속하게 됨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흑인 여종 마르타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루가 9,13)”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줌의 삶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망설임 없이 생명의 빵의 힘을 믿고 내어줌의 삶(고마움의 표현)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인천 김주현 신부님 강론중에서)

+ 복음 [[루가 9,11 ~-17]]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었더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가톨릭 용어사전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첫 목요일이나 주일에 지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일에 지냅니다.

이 대축일은 1264년 우르바노 4세 교황 때부터 지내왔습니다. 전에는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이 따로 있었으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주신 사랑을 묵상하게 합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님께서서는 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당신의 몸과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분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